

전남, 지역사랑상품권 2500억 푼다…할인율 최대 12%

도비 50억원 선제 투입

연초 골목상권 회복 속도

영암·무안군 추가예산도

전남도가 민생경제 소비 촉진과 지역상권 안정을 위해 올부터 도비 50억원을 선제 투입, 총 25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연초 소비 위축을 고려해 할인 혜택을 강화하고, 골목상권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판단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발행은 정부 예산과 시군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는 상시 10% 할인율에 도비 2%를 추가해, 연초 한시적으로 최대 12%까지 할인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체감형 할인 혜택을 통해 도민의 소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매출 효과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의 선제 발행과 안정적인 할인율 유지 정책을 통해 소비 진작과 소상

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확인해 왔다. 이번 도비 추가 지원 역시 이 같은 정책 기조의 연장선으로, 경기둔화 국면에서 민생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연초부터 도비를 신속히 투입해 할인율을 높인 것은 도민의 소비 부담을 덜고, 친체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향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주야와 소비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추가 재정 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운영 효과를 점검하고, 상품권이 민생경제 회복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영암군과 무안군 등 일부 시군은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연초에 집중되는 가계 지출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철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지난 2일 북광주농협 관내 딸기 재배 농가와 로컬푸드판매장 등을 방문해 본격적인 출하철을 맞은 딸기 작황과 출하 상황 등을 살펴보고 농업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LH 광주선운2 상업·자족시설용지 재공급

4필지 최대 15% 가격 인하…14~15일 접수

LH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유병용)는 광주 선운2 공공주택지구 내 상업용지와 자족시설용지 총 4필지 가격을 내려 재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상업용지 2필지는 각각 4400㎡, 4600㎡ 규모로, 공급예정가격은 167억원(3.3㎡당 1266만원)과 168억원(3.3㎡당 1203만원)이다. 이전 공급단 가 대비 최대 15% 인하됐다. 매매대금은 유이자 조건으로 3년 균등분할 납부 가능하다.

자족시설용지 2필지는 각각 3400㎡, 4400㎡ 규모로, 공급예정가격은 63억원(3.3㎡당 612만원)과 73억원(3.3㎡당 545만원)이다.

이전 공급단가 대비 최대 9% 인하된 금액이며, 매매대금은 무이자로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광주선운2지구는 선암동·운수동·소촌동 일원에 39만8000㎡ 규모로 조성하는 공공주택지구로, 이번에 공급되는 토지와 일부 농지구간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24년 말 1단계 준공을 완료했으

며, 2단계 구간은 오는 6월 말 준공 예정이다. 인근 KTX 송정역, 광주공항, 무진대로, 무안광주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망을 통해 광주지역 내·외로 이동이 편리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지구 남측 광주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개발 호재로 기대를 모고 있다.

광주선운희망타운2단지(606세대)와 광주전남 최초의 신혼희망타운(1224세대)은 이미 입주를 완료했으며, 7월 예정된 영무예아(554세대) 입주가 시작된다.

LH 청약플러스 (<http://apply.lh.or.kr>)를 통해 신청접수 가능하며 입찰·추첨신청 및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 납부는 14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4시까지다.

문의 LH 통합 콜센터(1600-1004) 및 LH 광주 전남 판매팀(062-360-3151).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농협, 올해 2000여 농가에 보급형 스마트팜 설치

전년비 2배 ↑…NH투자증권과 비용 70% 지원

농협중앙회가 올해 정부와 협력해 보급형 스마트팜 설치 농가를 지난해보다 두 배 늘린 2000여戶으로 확대한다.

5일 농협에 따르면 보급형 스마트팜은 기존 시설 하우스와 노지에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스마트 설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된 농협형 모델이다.

시설원에 농가를 대상으로 한 환경제어형, 양액 제어형, 복합환경제어형과 노지 재배 농가를 위한 관수제어형 등이 포함된다.

이 사업은 농협경제지주가 생산자 조직과 공급업체를 연계하고, NH투자증권과 함께 설치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NH투자증권이 60%, 농협경제지주가 10%를 각각 부담한다.

그 결과 지난해 보급형 스마트팜 설치 농가는

230여戶에서 1000여戶으로 크게 늘었으며, 농협은 올해 정부와 협력해 설치 규모를 2000여戶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기후 변화와 농촌 인구 감소 등으로 농업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스마트팜은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이라며 “보급형 스마트팜 설치 확대를 통해 미래 농업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새해 첫 현장 경영 일정으로 충남 논산 강경농협을 찾아 농협 금융과 경제 부문이 협력해 추진 중인 보급형 스마트팜 공급 확대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내 스마트팜 농가 운영 현황과 자물 생육 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목표 공유를 넘어 △고객 신뢰 회복,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 △현장 중심의 효율적 경영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실질적

김은지 기자 rozyb@gmail.com

중기부-소진공, ‘스마트상점 기술보급기업’ 모집

기술보유기업 130곳 선정…12~23일 접수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스마트 기술 보급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할 기술 공급 기업을 오는 12~23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점포에 키오스크와 테이블오더, 무인판매기 등 스마트 기술을 보급해 매장 운영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올해 기술 공급 기업을 약 130곳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원에서 기술 부문 중 배리어프리 (barrier-free)의 지원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해 고령자와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한 기술 도입을 확대했다. 이 밖에 웹형 소프트웨어 지원 기간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렸다.

소상공인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스마트상점 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된다.

김은지 기자 rozyb@gmail.com

“고객에 신뢰받는 지역선도은행 도약”

농협은행 광주본부, 2026년 책임경영 협약식

NH농협은행 광주본부가 2026년 범오년 새해를 맞아 ‘고객중심의 지역선도은행’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농협은행 광주본부는 지난 2일 임철현 본부장은 비롯해 관내 사무소장과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책임경영 협약식’을 열고, 올해 경영 전략의 내재화와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목표 공유를 넘어 △고객 신뢰 회복,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 △현장 중심의 효율적 경영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실질적

인 행동 강령으로 구체화했다. 참석자들은 금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광주 본부의 비전을 현장에서 구현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함께했다.

임철현 본부장은 “농협은행 출범 14주년을 맞는 올해를 ‘대도약의 해’로 삼아야 한다”며 “비전과 전략을 바탕으로 전 임직원이 하나로 뭉쳐 지역민에게 신뢰받고, 고객이 미소 짓는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 확실히 자리매김하지”고 강조했다.

이승호 기자 photo25@gwangnam.co.kr



NH농협은행 광주본부는 지난 2일 임철현 본부장을 비롯해 관내 사무소장과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책임경영 협약식’을 열고, 올해 경영 전략의 내재화와 실천 의지를 다졌다.